



홍수와 가난과 이슬람의 나라 방글라데시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이곳은 벌써 낮 기온이 35도가 넘기 시작하면서 대사관에서 열사병예방 안내를 받고있습니다. 요즘 들어 시간이 더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시간이 40km, 50km... 같이 점점 더 빨리 지나간다고 하셨던 것이 그때는 실감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잠시 돌아보면 한 달이 지나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점점 더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분주함 가운데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이뿔캠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지나 다시 조이뿔 캠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새로 모임을 시작하고 있는 장소에서 천막을 치고 캠프를 진행해서 아이들을 집중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교회에서 진행하게 되어 더 아이들이 잘 집중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선임 선그사님의 청년팀에 스텝으로 있다가 올해부터 새롭게 동역하게 된 쇼립이 캠프에 처음으로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섬기려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부디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캠프 때마다 참석한 아이들의 찢어진 가방들과 신발들을 보게 되고 매번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번에도 너무 낡아 찢어진 슬리퍼를 세 번이나 꿰매어 신고 온 아이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국이라면 꿰매 생각도 안할 물건이지만 이곳 아이들은 그마저도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현지 교총회



올해 현지 교총회는 특별히 그간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사역을 감당해 오던 3명의 안수대상자들이 시험과 면접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중 두 명은 저희와 동역하고, 동역했던 현지 목회자 분들의 자녀들이어서 더 뜻 깊은 안수식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 먼 곳까지 안수위원들이 와주시고 안수식 이후에도 총회로 모인 분들에게 말쑥을 전해주시며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총회 후에는 지역별로 팀을 만들어 청백전을 하며 단합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더욱 서로 연합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현지교인들이 되기를 더욱 손 모으게 됩니다.

신길교회 팀 방문

이 척박한 땅에 너무나 오랜만에 귀한 팀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팀이 오시기로한 때부터 저도 함께 구역을 시작하며 사모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팀이 오시게 되면 식사와 이동도 쉽지 않고 힘든 사역을 마치고 쉼을 가지지 못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해서 죄송한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귀한 일정 가운데 하느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열매 맺어가게 될지 기대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올 해부터 NGO사역을 시작하게 되어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저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하느님과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기에 용기내어 간절한 마음으로 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 센터 마당에서 워쉽과 무언극이 진행될 때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더워진 날씨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팀원들이 흘린 땀 방울들이 드러진 간절한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정 가운데 구초그람에서는 원래 교부아이들만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지 않았던 무수림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무수림 아이들이 있어 더 선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직은 교부가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가능성이 있을 때 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유치원 소식



올해 부흥절은 저희가 이제 막 NGO로 사역을 시작했고 라마단 기간 중이어서 크리스찬 교사들이 조심히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서 생일잔치와 같이 진행하며 부흥절의 의미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역에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해져야 하는 복음이 막히 않고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만이 아니라 같은 단체의 NGO 비자를 받고 계시는 다른 교부분들에게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치원은 NGO 프로젝트로 정식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매월 그리고 분기별로 각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분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희 스텝들이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보고서들을 준비할 때 실수가 없도록 그리고 확인하는 저도 실수하지 않도록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센터를 건축해주신 재단에서 방문하셔서 저희의 활동을 돌아보시고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필요를 돌아보시고 저희 선수가 많은 선물들과 함께 저희를 위로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차를 타고 이동하시면서 계속 놀라시며 저희가 어려운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해주시는데 저희의 상황을 보시고 이해해주셔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다시...

저를 사로잡아 주셨던 말씀들이 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게 합니다. 그러나 문득 돌아보면 그 말씀들을 잊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제게 찾아와 주십시오.

다시 말싸하여 주십니다. 다시 사로잡아 주십니다. 꺾게서 쓰시겠다 하라 말싸하셨습니다. 저를 사용해주세요가 아니라 저는 부족한자이지만 그런 저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느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니 무엇을 준비해놓고 있어라 하지 않으십니다. 저를 미리 조성해 놓으시고 사용하신다고 찾아와 주십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다니게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을 언제까지 준비하고 있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다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게는 조금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과 같은 불가능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말싸하신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하느님의 열심으로 저를 만들어 가십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를 사로잡아주신 말싸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지만 어느새 있고 있었었습니다. 눈 앞의 어려움을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놓고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리십니다. 사로 잡아주셨던 말싸들을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놓고 다시 보고 다시 말싸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편지를 준비하면서 다시 말싸 가운데 붙들어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시 또 들려주신 말싸를 붙들고 나아가려합니다. 꺾님만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꺾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꺾님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음 되시네

꺾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꺾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꺾 항상 같은 곳에서
꺾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꺾 변함없으신 계획
꺾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요즘 제 안에서 머물고 있는 예람워쉽의 찬ㅇ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꺾, 나의 길이 되신 꺾,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모든 걸음 되십니다. 이 찬ㅇ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꺾주세요

- 1. 2024년 주ㅇ학교 사ㅇ과 유치원, 샤프마리 학교의 계획들이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진행되도록
- 2. NGO 비자를 받기 위한 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돕는 손길 이 되도록. 아직 아내와 은성이의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속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꺾를 부탁드립니다.
- 3. 샤프마리 학교에 1층 채플실과 2층 멀티미디어 도서관, 야학 건립을 위해 기ㅇ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샤프마리 학교에 절반 가량의 무수림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

습니다. 채플 시간을 통해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 형편으로 인해 어려서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학부형들도 야학을 통해 글자를 배우고 학생들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도서관과 야학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4. 뉴라이프교회 재건축으로 선교회(유치원)과 호스텔 야학이 운영되도록

뉴라이프 교회는 수도 다카에 한 곳 뿐인 방글라데시 현지 성결교회입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의 한쪽 부분을 재건축을 해서 기존의 교회건물과 연결확장해서 선교회(유치원)을 운영해 복음을 전하며 주변 무슬림들에게 야학과 문화교실들을 통해 관계전도를 해나가며 자립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호스텔을 통해 아이들을 말쓰으로 양육해나가는 도시선교의 자립적인 모델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자합니다.

5. 유치원 운영을 위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NGO 사역을 하게 되면서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이 부족하게 되어 죄송하게도 교회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의 재정으로 감당해 왔지만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워져서 교회를 부탁드립니다.